

축 사

오는 2011년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 문명의 결정체라고 일컬어지는 대장경 판각을 시작한지 1천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고려 현종 2년 때인 1011년 거란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판각을 시작하여 7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완성하였고, 이 초조대장경이

**1232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자
1236년부터 다시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1251년 현재의 팔만대장경을 완성하
였습니다.**

**이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와 합천군, 그리고 경상남도가
대장경 조성을 시작한지 1천년 되는
해를 맞아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을 개최하는 것은 대장경의
민족사적 가치와 인류사적 의의를
널리 선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축전을 통해 희망과 공존이라는 대장경의 또 다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경을 평가할 때 불교 경전의 집대성과 목판 인쇄술의 혁신이라는 점이 강조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장경이 거란과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장경은 그 국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과 인류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언제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대장경은 그 조성을 통해 한자권 불교
문화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교류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경이 단순한 불교 유산
이나 기록유산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희망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경이 전하는 가치를 선양하여 인류에게 공존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불교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호 경남도지사님과 심의조 합천 군수님 그리고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문화의 발전과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큰 일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역시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010년 3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